

인터뷰 자처한 오은영 박사, “구설 오르며 ‘사명감’ 더욱 커졌다”

술한 방송출연 소신 “사회 돌려주고파”
ENA ‘오은영게임’ 4~5년 전 부터 기획
‘놀이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58) 박사는 구설에 오르며 사명감이 더욱 커졌다. SBS TV 예능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2005)로 얼굴을 알렸고,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 등을 통해 육아 대동령으로 떠올랐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방송에 출연했지만, 이미지도 많이 소모됐다. 최근 MBC TV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출연자가 7세 의붓딸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뭇매를 맞기도 했다. 논란이 채 가라앉지 전 ENA ‘오은영 게임’을 선보여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었다. ‘여러 논란을 씻고 가겠다’며 인터뷰를 자처한 까닭이다.

“마음고생을 좀 했다. 대중들이 다른 분들 몰라도 ‘오은영 선생님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 건강이 나빠져 두 달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거동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됐다. 가끔 ‘오은영 선생님 말이 정답이에요?’ ‘신이요?’라고 하더라. 전문의 시각으로 진단하지만, 1부터 100까지 전문의로서만 표현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경험과 57년 살아온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손을 내미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 꼭 오은영 언어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언어로 ‘저 정도는 나한테 도움이 되겠네’라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오 박사는 술한 방송 매체에 출연하는 데 소신이 있다. 무엇보다 방송의 순기능을 활용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나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에서도 의사로서) 32년간 해왔던 걸 하는 것”이라며 “방

송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다. 재방송을 엄청 많이 한다”고 웃었다. “SBS TV ‘씨클하우스’는 신년 특집으로 10회만 딱 했고, KBS 2TV ‘오케이오케이’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직접 찾아 가서 만났다. 시청률 신경 쓰지 말고 KBS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은영 선생님은 다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약간 속이 상한다”고 했다.

물론 ‘왜 오은영 박사는 아이만(상담)하지?’라는 얘기도 듣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따고,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를 다시 탄 이유가 있다. “암 세포를 발견하고 좀 더 빠른 진단과 함께 의학적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마음을 보는 의사라고 하지 않느냐. 아이는 인간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난 부모와의 관계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균형있게 크면 향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평생 함께 했다. 아이 발달을 좀 더 이해하고 공부하고 싶었다”며 “32년간 현장에서 수정란부터 시작해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중년, 장년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긴 인생 속 어려움을 이해하고 치료했다. 약물·정신치료를 하고 개인·그룹·부부상담 등을 통해 진료했다. 모두 현장에서 해왔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은영 게임을 향한 애착도 남다르다. 오 박사는 아동발달 전문가와 유아 발달 검사를 개발, 나이·성별·성향이 다른 아이 100명에게 유형별 놀이를 추천하고 있다. MC 신

동엽과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후 18년 만에 호흡을 맞춰 기대를 모았다. 지난달 24일 첫 선을 보인 후 2회까지 방송했는데, 시청률 0.3~0.4%(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에 머물러 있다. “녹화할 때 가끔 신동엽씨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잘못 얘기한다”면서 “오징어 게임 패러디냐고 하는데, 오은영 게임은 4~5년 전부터 준비한 놀이 프로젝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놀이 안에는 모든 육아가 담겨있다”며 “아이에 관한 이해를 놀이를 통해 관찰하고 부모와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부모와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고, 아이를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한 교육도 놀이 안에서 일어난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오은영 게임은 내 이름이 들어가서 아니라, 몇 년 동안 애써서 만들었다. ‘시정물이 너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더라.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시청률 중심으로 가고 싶진 않다. 시청률이 높아도 여러 번 안 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은영 게임은 두고 두고 볼 것 같다. 아이를 안 가진 분이 부모가 되면 보고, 어른으로 확장해서 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시청률이 높아야 ENA에서 시즌2를 만들겠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보고 도움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

오 박사는 놀이 선입견을 깨고 싶었다. “놀이가 아이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까지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며 “저학년까지는 ‘놀이 쥐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놀 나이가 아니라고 하더라. 놀이를 생산적인 것의 반대로 인식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놀이는 인간이 발달하는데 가장 좋은 자극”이라며 “아이가 나가서 뛰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균형을 배우고, 내 몸이 어디로 향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알아야 한다. 진흙, 모래 등을 만져보고 상대방 표정을 보고 질이 좋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아이가 ‘부모와 놀이하는 게 즐겁다’는 걸 배워야 다른 사람과 만나도 행복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히 유아기가 타격을 받았다. 외부 자극도 줄어들면서 발달에 문제가 생겨 ‘더 빨리 서둘러야겠다’ 싶었다. 놀이의 중요성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인식하길 바랐고, 양육 공포도 줄여주고 싶었다. 비용 부담없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을까?’ ‘미래 희망인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클 수 있을까?’ 고민했다.”

오은영 게임은 총 8회 분량으로 기획했다. 종방 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보일 방법을 고민 중이다. “개인적으로 의미있고 장대한 프

로젝트”라며 “만 3~7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연령별로 수백 개 콘텐츠를 마련했다. 거의 마무리 단계다. 부모가 일상에서 적용해 아이의 고른 발달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기다려주면 놀이 콘텐츠를 계속 선보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 동안 현장에서 아이를 진단하고 부모와 치료 방법을 의논했다. 흔히 말하는 ‘오은영 급속 처방’ ‘오은영 매직 솔루션’ 등은 대체로 놀이다. 부모와 함께 질이 좋은 상호작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 TV 프로그램 안에서 부모가 노력하고 아이와 함께 놀이로 변화하는 걸 많은 시청자들이 봤다. 진료 현장에서도 놀이를 치료 방법으로 제시해 효과가 있는 걸 봤지만, 놀이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만 적용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 놀이가 가진 엄청난 힘을 알려주고 싶다.”

BTS 7인, 각자 100억 이상 주식 보유...방시혁 2.5조 ‘넘사벽 1위’



국내 주요 문화 콘텐츠 관련 주식 재산이 100억원 넘는 개인주주는 총 34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30% 정도는 하이브 주식을 보유한 주주였는데,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도 모두 100억 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주식평가액은 2조5000억원 이상으로 2~3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연구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주요 문화 콘텐츠 주식종목 중 주식평가액 100억원 넘는 개인주주 현황 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상장사 중 영화, 음반,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에서 문화 콘텐츠를 제

문화 콘텐츠 종목 주식재산 100억 이상, 총 34명

작하거나 유통하는 곳 중 주식가치가 100억원 넘는 개인주주다. 게임, 캐릭터, 오락, 여행 등의 종목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문화 콘텐츠 관련 주식종목 중 지난 10일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억원 넘는 개인주주는 모두 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34명의 전체 주식재산 규모는 4조1174억원 수준이었다.

이중 방시혁 의장의 주식재산만 61.5%나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방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의 주식재산을 모두 더한 1조6090억원(38.5%)보다 더 컸다는 얘기다. 방 의장이 보유한 주식재산 규모는 2조5684억원으로 계산됐다.

방 의장의 주식평가액 수준은 국내 주요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최태원 SK 회장이 이어 7번째로 높았다.

방 의장의 주식재산 규모는 주식부자 2위인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3959억원) 창

성 총괄 책임자(CCO)보다 6.5배 컸고, 3위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1657억원) 창업자보다 15.5배 많았다.

방 의장을 포함해 하이브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 중 11명이 주식재산 1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방 의장 다음으로 하이브에서 두 번째로 높은 주식평가액을 보유한 개인주주는 스쿠터 브라운(903억원) 하이브 아메리카 CEO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규(171억원) 매니지먼트총괄(CMO)은 세 번째로 높았으며, 윤서준(117억원) 전 하이브 아메리카 CEO도 100억 클럽에 포함됐다.

앞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모두 BTS 멤버가 이름을 올렸다. 민윤기(슈가), 박지민(지민)·김태형(뷔), 전정국(정국)은 모두 6만 8385주를 동일하게 보유해 이달 10일 기준 주식가치만 133억원으로 동일했다. 정호석(제이홉)은 6만2784주를 보유해 122억원으로 평가되며 이어 김남준(RM) 113억원, 김석진(진) 102억원 순으로 주식평가액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규 “‘장학퀴즈’ 50주년 함께해 기뻐”



‘장학퀴즈’가 50주년을 맞았다.

오는 18일 오후 12시5분 방송하는 EBS 1TV ‘장학퀴즈’에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과 인재의 조건을 탐색하는 50주년 특집 ‘인재의 비밀’ 편이 전파를 탄다.

1973년 2월 18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청소년 인재를 배출해낸 ‘장학퀴즈’는 1973년 MBC TV에서 방송을 시작한 후 1997년 1월 EBS로 방송사를 옮겨 26년간 방송됐다. 1993년에 한국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기네스북에 등재, 2017년 한국판 기네스북인 한국기록원

에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

현재 프로그램 MC인 방송인 장성규는 “운이 좋게도 진행을 하고 있는 시기에 50주년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 ‘장학퀴즈’와 장성규라는 사람이 이전부터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첫 방송인 1973년부터 현재까지 50년이라는 세월이 보지 않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50주년 특집 방송에서는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번 특집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성규는 “‘장학퀴즈’ 출연자들이 너무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신 것 같다. 제가 진행하며 만났던 수많은 참가자들의 미래가 기대되고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게 될 것이라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1973~1990년까지 18년간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차인태 전 아나운서와의 만남에 “같은 자리에 함께 했던 것만으로 너무나 영광이었고 시공간을 초월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뉴진스, 블랙핑크 ‘K팝 걸그룹 핫100 최장진입’ 기록 깬다

‘OMG’ 4주 연속 진입과 동시에 꾸준히 상승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자체 최고 순위를 또 경신했다.

14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2월 18일 자)에 따르면 뉴진스가 지난달 2일 발매한 첫 싱글 ‘OMG’의 타이틀곡 ‘OMG’가 ‘핫 100’에서 74위를 기록했다.

4주 연속 진입과 동시에 전주 77위 대비 3계단 상승한 순위다. 뉴진스의 ‘OMG’는 빌보드 ‘핫 100’에 91위(1월 28일 자)로 첫 진입한 뒤 79위(2월 4일 자), 77위(2월 11일 자)를 거쳐 매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수록곡 ‘디토(Ditto)’는 이번 주 ‘핫 100’에서

82위를 차지하며 5주 연속 차트인에 성공했다. 이 노래는 96위로 빌보드 ‘핫 100’(1월 21일 자) 진입 후 그간 소폭 순위 변동을 보이다가 이번 주 8계단 반등했다.

‘OMG’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디토’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소속사 여도어는 “데뷔한 지 6개월 만에 ‘핫100’에 두 곡을 동시에 올려놓은 것도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 꾸준히 차트에 머물고 있는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특히 뉴진스는 미국 현지 활동이나 프로모션 없이 글로벌 팬들 사이 자연발생적인 입소문을 타며 오직 음악만으로 주류 팝 시장서 반



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핫100’은 북미 시장 ‘풀뿌리 인기’를 반영하는 차트다. 아직 본격적인 해외 활동을 펴고 있지 않은 뉴진스의 이런 인기는 다소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뉴진스가 이런 기세에 힘입어 K팝 간판 ‘블랙핑크’가 갖고 있는 K팝 걸그룹 ‘핫100’ 최장진입 기록도 갱신 관심이 쏠린다.

포스트맨, 6년 만에 신곡 ‘안녕 신촌’ 발매

포스트맨(POSTMEN)이 ‘신촌을 못가’ 발매 10주년 기념을 위해 돌아온다.

14일 포스트맨은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신곡 ‘안녕 신촌’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 소식을 알렸다.

포스트맨은 24일 신곡 ‘안녕 신촌’을 전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2017년 공개한 싱글 ‘하나부터 열’ 이후 약 6년만의 컴백이자, 히트곡 ‘신촌을 못가’ 발매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컴백이다.

신곡 ‘안녕 신촌’ 뮤직비디오는 슈퍼주니어 은혁이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고 신동이 연출했다. 두 사람은 평소 친한 친구인 포스트맨의 컴백을 응원하기 위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또한 포스트맨은 박혜원(HYNN)의 소속사인 뉴오더 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활동을 시작한다. 앞으로 소속사와의 협업을 통해 방송,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